

“촛불에 담긴 개혁 요구 작은 힘 보태겠다”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민형배에게 듣다

민형배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기초자치단체장, 청와대 비서관 등을 거치면서 풍부한 지역사회·중앙행정 감각이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광산구청장 재선, 두 차례 청와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의 조정자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최근 청와대를 떠난 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 행보에 대해 들어본다.



약력

- 참여자치21 대표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대통령비서실 인사관리행정관
-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 민선5·6기 광주 광산구청장
- 대통령비서실 지방발전비서관
-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1년여간 청와대 근무를 마친 소감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었다. 무거운 짐을 벗는 것 같아 홀가분한 마음도 든다. 하지만 공적으로 보면 많이 무겁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의 사회개혁 요구를 실현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 노력들을 법제화, 제도화해야 하는 부분에서 결함이 더디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청와대를 나왔지만 남은 과제 실현을 위해 내 나름의 노력을 보낼 계획이다.

-참여정부 당시 근무와 이번 근무를 비교하면.

▲큰 흐름은 참여정부 2.0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분위기는 열정적이었다. 필요하다 싶으면 추진했고, 옳다고 믿으면 그 길을 갔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긴장감 같은 게 컸다. 엄격한 규율이 작동하고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구체적으로 근무환경이 이전과 크게 바뀌었다.

“
靑 근무 1년 개인적으로 영광
홀가분하지만 무거운 마음도

앞선 실패 반복 않겠다는 현정부
강한 의지만큼 중량감 강화돼

청와대 내 이동환경은 자유로워졌지만 업무 관련 규칙이 강화됐다. 일례로 업무 중 USB 사용조차 예전과 달리 엄격하게 규제했다. 청와대 생활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응이 어렵지는 않았다.

전반적인 인상은 참여정부 때보다 세련됐고 딱딱해졌다. 참여정부 당시 분위기는 ‘열정’으로 함축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보좌진들은 젊었고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출신이 거의 없었다. 반면, 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분위기는 무게감이 있고 진중하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출신이 많다. 인적풀이 확대된 느낌이다. 앞선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중량감이 강화된 것으로 생각한다.

-비서관으로서 바라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자면.

▲노 전 대통령은 전형적인 파이터였다. 돌파



최근 청와대 비서관직을 마친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이 무등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오세욱기자 dksos@srb.co.kr

하고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차분하고 치밀하다. 매우 정교한 스타일이다. 반면, 노 대통령은 속마음이 표정에 드러난다. 문 대통령의 경우 표정은 온화하지만 내적 에너지가 아주 강하다.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정치의 힘을 믿는 개혁주의자이고 역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휴머니스트라는 점도 비슷하다.

-지난 1년여간 청와대 근무를 하며 기억에 남는 일화는.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매우 엄격하고 간간하다. 지난해 여름에 청와대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관사에 에어컨이 없었다.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민원을 제기해도 꾀꿍도 안하는 모습을 봤다. 올해여사야 에어컨을 설치했다. 청와대를 나올 때에는 문 대통령이 떠나는 비

서관들을 모아 국정 현안과 덕담을 해줬다. 지소미아와 신소재 산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이) 총선 도전의 뜻이 있는 이들에게는 뜻하는 바를 이뤄 모두 국회에 입성하면 좋겠다는 말을 해줬다.

-총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향후 행보는.

▲지난해 1분기까지 지역에서 8년 동안 구청장을 했다. 시급한 현안, 갈등 사안, 장기 과제 등은 잘 파악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일했으니 국정 목적과 방향도 체득돼 있다. 정책과 공약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1년여 시간 동안 정부 일을 하다 보니 그 사이 주민들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꾸준히 주민들을 만나볼 생각이다. 주민들이 정치권에,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걸 잘 수렴하는 과정을 계속해가는 것이

“
盧·文 대통령 공통점은
‘정치적 힘’ 믿는 개혁주의자

역사에 대한 두려움 알고
사람 믿는 휴머니스트

내가 생각하는 총선 준비다. 일각에서는 지역기반 약화에 대해서 말하는 데 (오래전부터) 다져진 지역기반이 1년 사이에 약해진 것 같지는 않다. 간단한 예로, 청와대 일을 하러 가면서 문자나 SNS로 인사를 드렸을 때, 그리고 청와대 일을 마쳤다고 인사를 드렸을 때 반응의 온도가 조금 달랐다. 떠날 때보다 돌아오니까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쏟아졌다.

-정치인으로서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은.

▲모든 정치인은 멋진 미래를 공약한다. 미래 공약만으로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좋고 실력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다. 어떤 일을 해왔는가 하는 이력이다. 전남일보 기자, 참여자치21대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광산구청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다. 시민사회, 지역정부, 중앙정부 등을 고루 거친 다양한 경험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현안의 경우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특정 정책 말하지는 않겠다. 지금이 현안 해결의 가장 좋은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해서인지 광주를 고민하는 민주당의 태도도 적극적이다. 지역사회의 합의 수준이 높으면 어느 때보다 현안 해결의 조건이 좋다. 한전공대, 인공지능(AI) 중심 산업단지 같은 대통령 공약을 분명하게 쟁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균형발전, 어등산 개발, ACC 정상화 같은 현안에 지역사회의 합의가 잘 도출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 정치적 리더의 결단과 집행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조정자로 뛰어들어 역할하고 싶다.

유대욱기자 ydy2132@srb.co.kr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심의필 제 190424-중-92867

암 환자를 위한
오아시스 요양병원

화순전대병원 5분거리
광주 동구 내남동 호반APT 옆

문의 062-250-2000
010-4166-0222

뿔뿔/스트레스 질환

경희한의의원

불면증 · 우울증
환병 · 공황장애

062) 365-1541
화정동 추신회관 맞은편

대한한의학회 의료번호 심의필 제070620-중-397호

깨끗한 자연환경을 살리는 파수꾼

유)오케이철거종합건축

오케이철거종합건축은 스테이트/석면철거
장부하가 없게됩니다.
만들고 상설함을 기업아념으로 감동한
철거를 전체조건으로 합니다.

▲ 스테이트 석면 철거 전문
▲ 공장 / 주택 / 상가 철거
▲ 집수리 및 미니포크레인(압쇄기 보유)
▲ 인력 상당현역 / 모든 중고 고가매입

H. 010-2595-2116
☎ 062)952-2117, 956-2116
Fax. 062)942-2116

타이티안 유기농 노니주스

신이 주신 선물 내몸을 살리는 '노니'

진한 노니주스
미국 USDA 유기농 인증 노니주스
무방부제, 무색소, 무항료

미국 직수입 100%
디자인 등록번호 제 30-1002825호

062)375-8494 H. 010-3605-2926

수입원 - 광송무역 / 대리점 모집
info@gstkorea.biz

캠핑카 주문 제작·판매

푸드트럭 제작 가능!

중고차 수입·회틀
승용·승합
최고가 매입!

대한민국 최저가로 제작·판매 합니다!!
광주 서구 매월1로 63번길 11

(주)기가찬 H. 010-8647-3457
☎ 062) 651-0075

http://unisolar21.com

태양광 발전소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 매전하여 매월 연금식 소득 발생

· 발전소 부지 매수 · 매도 · 발전소 자금 대출 가능
· 건축물 가중치 1.5 적용

▶ 해남 현산 고현리 : 100kW 7구좌, 500kW 2구좌
▶ 경기도 안성 : 400kW (분할 가능)
군중재에서 분양, 건축 허가완료, 선로 용량 있음

▶ 해남 현산 구사리 : 100kW 7구좌 우형이 생육사
* 100kW 예비 발전사업주 모집
발전소 개발행위 완료된 토지 매입(IMG군)

유니솔라 에너지 H. 010-9340-5519
☎ 062)672-5519

컨테이너 아주컨테이너

· 컨테이너 농가 주택 주문 제작
· 중고 사고 팔고
· 할부 가능

※ 직원구함

아주크레인 www.ajucon.co.kr
☎ 062)955-4100 휴. 010-6648-8990